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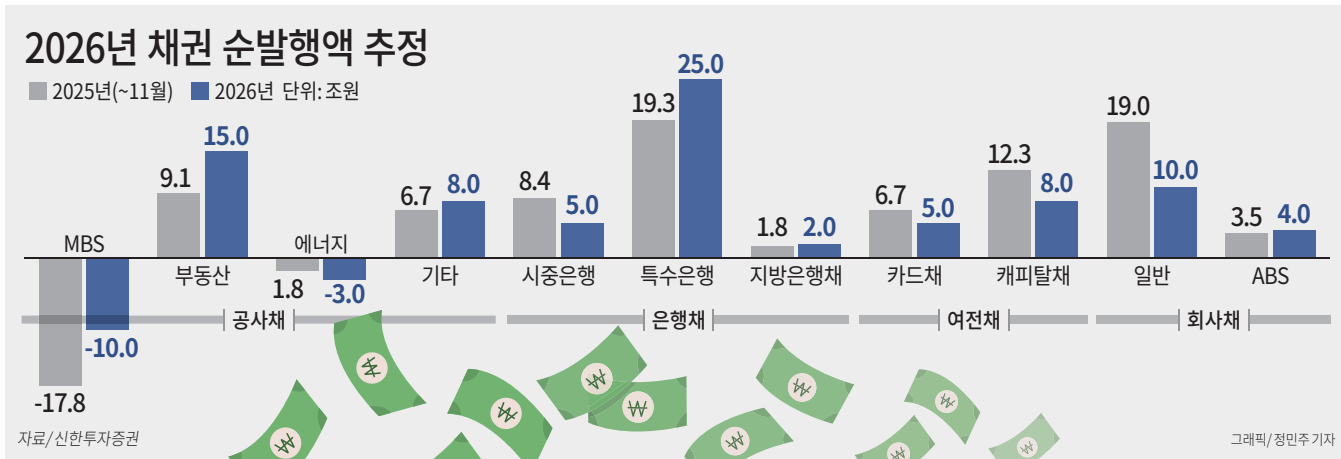
내년 ‘초우량채’ 발행 예고… 금리 부담에 기업 자금조달 비상

공사채·MBS 초우량물 공급 확대
일반 회사채 수요 ‘구축효과’ 우려
국고채 금리 연중 최고치 경신
내년 회사채 만기 78조2000억
기업들 발행 연기·축소 잇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 한미투자전략기금 신설 등으로 초우량 채권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사채, 특수은행채 등 우량채가 회사채 시장에 쏟아지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반 회사채는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내년으로 발행 계획을 미루는 곳까지 나왔다.

◆우량채에 가려 회사채 찬밥 우려

7일 금융투자업계와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내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은 10조원 이상 순상환이 예상된다. 그러나 초우량채 발행에 따른 수급 완충 효과를 기대하기에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다. LH 등 공사채 발행 증가가 예상되고 한국전력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한국전력은 3



분기 기준 부채 118조6000억원, 부채비율 490%, 차입금 잔액 86조1000억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비용만 73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된다. 발행사가 주금공인 만큼 한전채와 마찬가지로 공사채에 해당돼 일반 회사채보다 선호도가 높다.

일각에서는 회사채 등의 만기 규모가 급증하면서 채권 시장의 ‘구축(驅逐)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 회사채는 총 78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68조7000억원)나 지난해(73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5조~10조원

가량 많다.

국내 한 증권사 회사채 담당 임원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를 넘나드는 상황이라 신용등급이 AA급 이상인 대기업들의 회사채 금리도 3%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며 “내년에 각종 정부 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공사채 발행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 회사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MBS 순상환은 공사채 내부 수급 완충에 그칠 가능성이 커 초우량물 공급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면서 “다른 채권 공급 부담을 제어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급 주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은행들이 수요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주주환원 정책 및 자본비용 제고를 위해 위험가중 자산을 억제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까지 상승하고 있다. 국고채 금리는 이달 1일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5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994%, 5년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각각 3.198%, 3.358%를 기록 중이다.

◆자금 조달 미루, 단기채 시장 기웃

높아진 조달비용에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미루거나 줄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KCC글라스 등은 본래 계획했던 회사채 발행 일정을 연기했다. SK텔레콤은 이달 중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2400억 원대 회사채를 발행하려다가 이를 내년 1분기(1~3월)로 미뤘다. KCC 글라스도 마찬가지로 이달 중 최대 1500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하려다가 내년 초로 일정을 연기했다. 회사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기업들도 있다. 최근 HDC와 KT, SK온은 기존 계획보다 500억~1000억원가량 발행 규모를 줄여 회사채를 발행했다.

공모채 시장에 한파가 찾아오면서 일부 기업은 신종자본증권 등 사모채나 단기 자금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최근 롯데건설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일에는 CJ CGV가 250억원 규모의 6개월물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등 단기 자금 시장을 노크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국고채 금리 주변 여건도 불안하다. 이승재 iM증권 연구원은 “국고금리 방향성이 상단을 향해 트리아하는 동시에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면서 “환율 상승과 변동성 확대, 수입물가가 소비자물가로 전이돼 물가 레벨이 상승할 수 있는 부담,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내년 국고채 중심 채권 발행량 증가(공급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시 활황에도 증권사 전산은 ‘불안’

키움증권 민원 1.2만건, MTS·HTS 오류
ATS 출범 후 증권사 시스템 부담 확대
계좌금액 오류·타인 체결내역 전송 사고

‘불장’ 속 국내 증권사들의 전산 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며 투자자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증시 유동성 확대로 시스템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증권사들은 전산운영비를 늘리며 안정적 거래 환경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5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삼성·키움증권 등)의 올해 3분기 누적 전산장애 관련 민원 건수는 1만2076건으로, 전년 동기 17건 대비 폭증했다. 특히 키움증권이 지난해 0건에서 올해 1만2036건으로 뛰면서 전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삼성증권은 0건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과 6월 홈트레이딩 시스템(H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



ChatGPT로 생성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전산 오류에 불만을 표현하는 개미(개인 투자자)’들’ 이미지.

템(MTS) 접속 오류로 2분기에만 1만2013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 11월 6일에도 약 30분 정도 MTS 접속 오류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을 샀다. 앞서 9월 주식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 부문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자체 구축 시스템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태다. 키움증권은 대체거래소 구조를 위한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유일한 증권사다.

올해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함과 동시에 상반기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하면서도 증권사들의 HTS·MTS 오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상반기에도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들이 대체거래소의 성장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산 오류가 잦아진 바 있다.

지난 4일에도 개장 직후 한화투자증권 MTS에서 일부 고객의 계좌가 평일 대비 최대 수천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표시됐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 이자가 과대 산정된 영향으로 실제 피해나 금전적인 손실은 없었지만,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혼선을 빚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달 2일 메리츠증권의 MTS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신하은 기자

반도체 분야 ETF 순자산 7000억 돌파

한투운용 최근 1년 수익률 81%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기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의 순자산액은 70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말 순자산액 6000억원에서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1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는 반도체 산업 내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등 4대 핵심 분야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재 편입 종목 상위권에는 ▲SK하이닉스(24.15%) ▲ASML(20.83%) ▲

엔비디아(17.80%) ▲TSMC(17.79%)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당 ETF는 지난 2022년 11월 15일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 351.67%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 및 1년 수익률도 각각 336.26%와 81.01%로 집계됐다. 영역별 대표 투자가 업황 변동성을 완화하고 ▲한국 ▲네덜란드 ▲대만 ▲미국 등 글로벌 분산투자자 연결된 결과다.

ETF CHECK에 따르면 해당 ETF로 최근 1개월 새 유입된 자금은 697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반도체 ETF 51개 평균치(276억원)를 크게 상회한다. 같은 기간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 또한 149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하은 기자

4분기 새내기주 129%↑… 공모주 온기 회복

에임드바이오 등 ‘따따블’ 속출

4분기 들어 새내기주 수익률이 고공행진하면서 공모주 시장에 온기가 번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후 이달 5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11개사(리츠·스팩 제외)의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129.4%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19.7%)와 코스닥(9.8%) 수익률을 대폭 웃도는 수치다.

종목별로 보면 에임드바이오(420%)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노타(389%), 큐리오시스(225%), 이노테크(157%), 아로마티카(108%) 등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상장 첫날 종가를 보면 11개 종목은 공모가 대비 평균 127% 올랐다.

이들 11개 종목 중 2개사가 상장 첫날 ‘따따블’(공모가의 4배)을 기록했으며, 4개사가 ‘따블’(공모가의 2배)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7일 코스닥에 상장한 이노테크가 지난 2월 24일 상장한 위너스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따따블’을 달성했으며, 이달 4일 상장한 에임드바이오도 공모가의 4배에서 장을 마쳤다.

아울러 명인제약(10월 1일 상장), 노타(11월 3일 상장), 씨엠티엑스(11월 20일 상장), 아로마티카(11월 27일 상장)도 줄줄이 첫날 ‘따블’을 달성했다.

/신하은 기자

미래운용,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7조 돌파

상장 15주년 누적수익률 1500%
장기투자 대표 ETF로 자리매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이 7조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은 7조2422억원이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지수 투자 상장지수펀드(ETF) 중

최대 규모다. ‘TIGER 미국S&P500 ETF’,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중 나란히 순자산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다. 지난 10월 상장 15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장수 미국 투자 ETF로, 상장 이후 현재까지 1500% 넘는 누적수익률을 보여주며 ‘장기투자 대표 ETF’

로 자리매김했다. 상장 당시 1만원이었던 주당 가격은 현재 16만원을 넘어섰다.

순자산 규모는 지난 9월 말 6조원을 돌파한 이후 불과 2개월만에 1조원 가량 증가했다.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주의 견조한 실적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나스닥100 지수는 올 들어 미국 3대 시장대표 지수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하은 기자